

406장 -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2026년 6월 9일(화)

이른아침예배

인도 : 박성락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406장
기도	김덕만 안수집사
성경봉독	여호수아 10장 8-14절
찬양	내 주 되신 주를 찬 사랑하고
설교	『오직 하나님 한분입니다』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찬송	322장
축도	설교자

- (1)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팔 의지해
 - (2)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 하리니 주의 영원한팔 의지해
 - (3)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팔 의지해
 - (4)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팔 의지해
- 후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322장 -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 (1)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 (2)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 (3)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기도 담당

6/9(화)	6/10(수)	6/11(목)	6/12(금)	6/13(토)	6/15(월)
김덕만 안수집사	강협수 안수집사	한상열 안수집사	김종진 안수집사	김두연1 안수집사	이범우 안수집사

☞ 오늘의 말씀 < 여호수아 10장 8-14절 >

8 그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9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10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륙하고 벤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11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벤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12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4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6년 6월 9일(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기에 만물이 살아있으며, 해가 뜨고 하루가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분만이 유일한 분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고, 물질이라는 가치만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심 같이 오늘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한분이심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새문안교회가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이 맘몬이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 참 진리를 전하며, 오직 하나님 한분만이 참 진리이시며 유일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학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제직들에게 성령충만을 더하사 주의 몸 된 교회를 성실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대와 남녀, 지역과 이념으로 나누어지는 사회적 갈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나누어진 것들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신, 모퉁잇돌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한국교회가 주님을 따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 북녘 땅에도 다시 평화와 자유의 날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